

감사

내가 주님께 감사할 때 주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영광 받으신 내 감동이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34와 135 감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
필요한 것을 살펴보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할 것 밖에 없습니다

주수감사절을 맞으며
교회 살건의 곳곳을 보살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기
젊은 남자화와 젊은 여자들 권면하며 고분하는 교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와 주신 감사의 손길
억척히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평원 식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성기는 손길이 먼저 감사와 기쁨을 주는 것
몽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묶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
청년의 비전과 예복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Emmanuel

임마누엘 [사랑/감사호] Vol.2, No.3, Nov. 23, 2014

CONTENTS

사랑/감사호를 열며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4-5
행전 스타일	특집 - 사랑의 흔적	6-7
	우리 교회안의 사랑 나누기	
	- My Mom's Last Request	8-9
	- 가족을 통한 사랑	10-11
	- 베데스다 사랑의 카드	12-13
	감사의 자리	
	- 위원회	14-17
	- 가정사역원	18-19
빛과 소금의 생각	시가 있는 풍경: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20-21
	전도탑: 복음이면 다 된다	22-23
	사도 바울 이야기	24-25
	Young Voice of Emmanuel: CM Vision	26-27
	함께 읽는 동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28-29
	사랑 공동체 이야기: NLCF	30-31
Fortran Drive 사람들	감사로 인생의 거울을...	32-33
	사랑하는 시현에게..., 보고 싶은 할머니께...	34-35
	사랑의 빛진 자	36-37
	나의 찬양	38-39
	'준비찬양'은 없습니다.	40-41
	임마누엘 레시피 1: 애플 파이와 고구마 파이	42-43
	임마누엘 레시피 2: 팥 앙배추 볶음	44-45
	추수감사절 스페셜 빙고 게임	46-47
	크리스천 영화방: 수상한 그녀	48-49
	뫼비우스 이야기: 도시 속의 작은 농촌	50-51
	목장 이야기: 우리는 달은 풀	52-53
	건강칼럼: 세례요한과 석형	54-55
	시기심은 평생 사명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56-57
	청교도의 후예들	58-59
	조정민의 잠언록	60-61
	편집부 한 해 감사	62-63

THANKS GOD! *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Google에서 'love'를 검색했더니 순식간에 'love'라는 단어를 사용한 56억 5천만 개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뜬다. 이처럼 이 시대에 '사랑'이란 말만큼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가슴 떨리는 말도 없고,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진부해진 단어도 없다. '사랑'이란 단어만큼 소중한 의미를 지닌 단어도 없고, '사랑'이란 단어만큼 그 의미가 퇴색된 단어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이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아담의 타락 이후 세속화된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 달라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불완전한 우리는 이 두 사랑을 자주 혼동하며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마가복음 10장 42-45절 말씀에 근거하여 분류한다면,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류는 지배하려는 사람들이다(controlling, demanding people). 둘째는 무관심한 사람들이다(un-concerned, passing-by people)이다. 셋째는 섬기는 사람들이다(serving, loving people).

첫째, 사랑을 하면서 남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사랑하는 많은 엄마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강요하지 못하면 불안해한다.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야단을 치고 공부를 시킨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남편을 혹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실망하고 갈등하고 화를 낸다. 교회를 지배하고 부서를 통제 밑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런 사람들이 걷는 길은 돌이다. 하나는 상대도 나처럼 강해서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약해서 굴종적이 되고 피동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두 길 모두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병든 관계일 뿐이다.

둘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무관심한 사람들도 무척 많다. 세상적인 사랑에 실망하거나 실증 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성경적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의 고통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눅10:27-32). 사랑을 알고 나름대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자기변명을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대가를 치르며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이다.

셋째, 예수님을 따라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막10:45). 교회에는 예수님을 본받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숨어서 이름 없이 섬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을 말한다.

세 부류 중에서 나는 정말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분별법은 다음과 같다. 어린아이를(막10:13-16), 혹은 바디매오 같은 소경 거지(막10:46-52)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된다.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예절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아부로 위장된 모습만 보여줄 뿐이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나는 세상에서 천대 받

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마25:34-40)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실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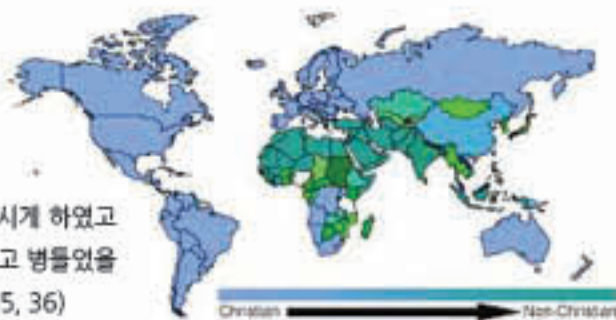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칭찬하고 우대한다. 세상에서는 키 크고 잘 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못나고 가난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은 직장이나 맞선을 보는 자리나 동창회나 사회 어느 곳에서나 무시를 당한다.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 세리, 죄인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천대 받는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마25:34-40, 막9:37).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을 지배하는 사람인가? 대가를 치르는 사랑에 무관심한 사람인가? 나의 진짜 경체는 무엇인가? 천대 받는 자들을 사랑해보면, 순식간에 나의 실체가 드러난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무시당하고 소외 받는 자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존중하여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요일4:12, 요14:21).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의 흔적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25:35, 36)



https://encrypted-tbn3.gstatic.com/images?q=tbn:ANd9Gc5LkK7qf3DF1vsD_LVCeVt0Lmy-4zfb1neLbCY-DKq10gX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이 굶주림, 세계 기아 인구의 98%가 개발도상국에 거주, 1분에 24명의 어린이가 기아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감, 5세 이하 유아 3명 중 1명은 기아로 사망, 전 세계 농업생산량으로 전 세계인이 매일 최소 2700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음.

<http://blog.nhmynews.com/hkhu/tp/%EC%95%84%ED%94%84%EB%A5%AC%EC%8B%84>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2025년경 세계 인구의 1/3이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 비위생적 인 물로 인한 사망자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10배에 달함.

물의 양과 질 문제로 고통받는 저개발국,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위험.

www.fenghui.org.cn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4.1초마다 난민 및 국내 실향민 발생, 실향의 첫째 원인은 전쟁과 내전, 그 외 종교, 인종, 국적, 소속 집단에 대한 핍박, 난민의 80% 이상이 개발도상국의 보호 받음, 만 18살 이하 미성년자가 전체 난민 인구의 46%

<http://redcross.or.kr/krc/publication.do?action=detail&contentno=1815&menucode=0701000000>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하루 1.25달러 이하 생활비로 연명하는 전 세계 절대 빈곤 인구는 12억 이상, 절대 빈곤층 3명 중 1명은 13세 이하 어린이, SPA(special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의 등장으로 쉽게 사고 버리는 상황, 제 3세계 빈민들은 옷이 모자라 못 입을, 자원의 낭비뿐 아니라 환경 문제 유발, 미국에서만 한 해 2500만 톤 의류 폐기.

<http://www.slideshare.net/jklee9511/39-7875240>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영양실조, 말라리아, 설사, 폐렴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예방 혹은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5살이 되기도 전 사망, 저개발국 평균 수명은 선진국보다 15-25년 낮음, '빈곤의 전염병'인 배설물 관련, 공기 전염, 곤충 매개 질병, 성행위(HIV/AIDS)로 인한 감염 유형은 예방 가능.

<http://www.povertywiki.org/index.php/>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의 소년병, 81개국 이상에서 비밀리고문 자행, 54개국 이상에서 불공정한 재판이 행해짐, 관습, 문화, 종교에 의한 여성들의 희생, 개인의 생존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선거권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 20세기의 박해 권수가 지난 세기 동안 핍박과 순교자 수보다 많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2/3가 핍박을 경험.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48320>



사랑의 흔적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 옆구리를 만져 보셨습니까? 내 팔을 주욱 뻗어 닿는 곳에 울고 있는 이가 있다면, 배고픈 이가 있다면, 헐벗은 이가 있다면, 사랑고픈 이가 있다면 이제 내가 안아 줄 차례입니다. 지구 상 모든 일을 덮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양손으로 각각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준다면 이 땅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일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의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 이윤선 역음



My Mom's Last Request

When I was approached to compose a testimony, I had no idea how difficult it would be. In fact, it was easier to write a 40 page research paper in the graduate school than a 1 1/4 page testimony. I realize as I write, I have to come to terms with my feelings which are brutally honest and somewhat excruciating. Those who have lost close love ones know the magnitude of such unbearable pain and the difficulties of opening up. Nonetheless, I hope it would turn out to be therapeutic and provide as a source of healing power.

"Life is short" used to sound like a cliché. When I learned of my mom's terminal illness two and

a half years ago, I realized life is really shorter than I had previously imagined. Many people avoid talking about the subject of death due to the fear of discomfort but death in itself is inevitable; we all have to face it, for some sooner. Since my mom's diagnosis of ovarian cancer, she had never once complained or even resented the infliction of the cancer in the first place. Even when she was bed-bound and during the hospice care at home in her final weeks, she said she was thankful to God for the terminal illness, stating that it would bring the family closer together. Her strength, courage, optimism were to be admired even when the odds were against her.

My mom was calm, soft-spoken yet when she spoke, her messages were extremely powerful and meaningful. There is no doubt that she had suffered and endured a lot: getting an extensive surgery, sustaining 10 different chemotherapy drugs and exhausting the list, and trying out radiation treatments. Just when there were no other options and her cancer marker escalating, she sat three of her children down and made a request. That request was for us to go to church. Looking back at her life, she remarked how she had been showered with continuous blessings and her prayers and even the most inner/unspoken thoughts answered by God.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salonians 5:16-18) After my mom's passing on August 21, 2012, I told myself that I needed time to grieve and cope but promised to return to church after a year. Consequently, I got baptized early this year, joined a mokjang and Bethesda following that, and just finished reading the entire Bible for the first time. A group of five members made a commitment to read the Bible individually and post our selected, meaningful, daily verses on KakaoGroup, which we started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group has recently increased from five to seven members. This system works because we can hold each other accountable. I enjoy reading the Bible because it encompasses the truth and shows the ways of life. Now, I am attempting to read the entire Bible again for the second time.

I am thrilled about my new family, mokjang because it serves as a form of empowerment and progress toward improved well-being, while keeping the group aligned with consistent routines and structures. Every week, we start out with singing praises, revisiting the Pastor's sermon, sharing QT, and ending with prayer requests. Although I am an amateur in faith, I learn tremendously from the members of my mokjang who are much deeper in faith compared to me. Nevertheless, I am growing and learning every week, including some improvement in Korean. Currently, I listen to

the Pastor's sermon with one ear and English translation in another.

After receiving a wakeup call, I have no doubt I have made the best decision to be baptized this year. I believe my 'on again, off again' connection to the churches over the years has been a culmination of baby steps and stepping stones, finally leading to me to the right place and renewing my faith in Christ. It took a long time to get here but I am ecstatic to reach my destination. I would want nothing more than to have an eternal life and be reunited with my mother in Heaven one day. "Fight a good fight of faith.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called when you made you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1 Timothy 6:12)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unconditional support and guidance of those I came in contact with at Emmanuel Church, especially the team from Bethesda. The lasting imprint you had made on my mom is absolutely staggering. My mom was beyond grateful and felt blessed for all the cards and words of encouragement. Thank you for the outpouring prayers over the years. The family is grateful, too. Finally when I think of Emmanuel Church, I feel connected, relevant, safe, and inspired. The love is beautiful and helps me transcend.

- Choi, Jung A

은혜 속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내가 용
당이에 빠졌을 때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강감다리처럼, 지팡이처럼, 때로
는 손전등처럼 함께 해주신 고마운 중보
자가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들의 **카톡을 통한 사랑**, 성령님께서 함
께 하셨던 삼겹살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



December 1, 2013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믿음이 적은가 봅니
다. 자꾸 사람이 커 보이고 사람에 의존하
려하고 사람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손끝만 바라보고 담대히 요동치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픈데, 제가 아는
것만큼 제 믿음이 따라주지 못하나 봅니
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 그곳이
데 깨끗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합당한 찬양자
가 되면 사람은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이리 중보를 부탁 드릴 분
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때도 오늘 오후에도 운동운동 김
사님 생각이 났어요. 매일 새벽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 찬양대를 인도하는
김사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김사님을 올
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아
시기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고 기도
드리지요.
사도바울의 고백이 눈에 띄네요. "오직 예
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
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구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
달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 그의 믿음을 지키며 어
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원천이 어
고백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김사님의 직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사람들에게
서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요. 김사님의 생각과 힘을 내려놓고 진실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김사님을
말씀으로 묶어 주시며 담대함으로 나가도
록 도와주실 거예요. 김사님의 기도 계속
더욱 간절히 기도 할게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스시는 김사님을 주 안에서
사랑해요(heart) 잘 구겨지는 옷은 잘 다
려지기도 한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반듯하게 다려진 김사님
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June 16, 2014

권사님-- 사람에게 기대가 있다 실망하고
설함이 있고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면, 그
랬서 마음이 아프고 무너진다면, 아직 저
는 저의 자아를 내려놓고 죽은 게 아니겠
지요? 다시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지난 새벽에 올린 찬양은 저의
소망을 담은 곡조 있는 기도였답니다. "아,
내 맘 속에 잠들 평화 있네 주님이 주신 귀
한 평화. 시험 닦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귀한 평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픈데, 지휘 25년 하면서 늘 겪는 일인
데, 늘 아프고 흉터 앞듯이 힘이 듭니다.
이사를 가던 개인적인 사유이면 합창단이
나 생가대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다 내 가족과 이별하듯이 가슴이 서늘
하게 아픕니다. 나 때문인가 하는 의심한
말도 들어 의기소침해지기까지 하고요. 매
주 며칠 사이로 계속해서 소식을 듣다 보
니, 벌써 두 주째 추스르기 힘들 정도로 맘
이 아픕니다.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하지만, 맘
이 받아들이기에는 헤어짐이라 꼭 사랑하
다 이별하는 듯 혼자 이리 냉가슴을 앓습
니다. 아아 아직도 주님이 다 하시는 거고
나는 쓰임 받는 도구라 말은 하면서도 마
음은 안 그랬나 싶어 우선 회개를 해야 할

짜 실어 여주고자 이리 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오늘 구의 말씀데
로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아픕니다. 평안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요, 권사님- 에스겔서를 읽다 맘이 어
지러운 가운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조
금 전 생각이 나 호산나 찬양대서 같이 의
우기로 한 시편 57편을 쓰며 묵상하다 보
니, * * 회한하게도 이 말씀 붙잡고 기
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네요. 피할 곳
도 주님이고 부르짖을 곳도 주님이고 어
루시는 것도 주님이고 구원하는 것도 주
님이니, 내가 할 일은 오직 감사하여 찬
송할 일뿐이라 하네요. 하나님이 다 하신
다 하고...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내
가 한 말이니 반드시 이루어신다는 거였으
니, 시편 57편 말씀도 게 안에서 이루어주
사겠지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쏟아냈다 혼자 또
이리 그리하겠다 하고 * * 저 못견다 좋
보시겠네요.
그래도 이리 나날 권사님이 계시서 감사
하고 또 좋습니다. 권사님, 평안한 밤 되
세요-^^

소연 김사님의 마음이 싸여하게 전해 옵니
다. 사랑은 믿을 수가 있는 거군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떠나보낸
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픈 일이지요. 가
정에선 중에 김사님 생각하며 다윗의 반석
이시며 다윗의 요새이시며 다윗을 견지시
는 다윗의 하나님에 나의 하나님이며 김
사님의 하나님에시길 고백하고 잠깐 꼭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김사님께 공평의 답을 주셨
군요. 떠나가는 호산나, 해본리의 사랑하
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고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기쁜 시간을 주께서
주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별해
야 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결호의 찬스네요.
인간의 낱수를 계산하게 하시는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하네요. 25년을 만나고 헤어짐
으로 하나님께서는 김사님을 더욱 하나님
만 바라보게 하셨을 거예요.

남은 생애를 계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견고히 사용하시
기 위해 더 성숙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
해요. 넘어져도 아주 일드러지지 않게 주
님께서 소연 김사님 손을 꼭 붙잡고 계시
네요. 김사님의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그
리고 저 홀 안 봐요. 김사님은 참 귀여워
요. 예고로 봐 줄게요. 오늘도 승리의 밤
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본
리 보이스, 호산나 위해 기도할게요. 쓰다
가 기도하고 쓰다가 기도하고 쓴 적은 처
음이에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때 성령
님께서서는 거회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셔서
참 평안을 얻게 하지요. 그 성령님께서 따
따로 우리가 머리에서 경계될 때 가슴까지
인도해 주시며 바른길을 걷게 하시는 '보
혜사'이심을 이방도 깨닫게 해 주셔서 가
슴이 벅잡니다.
산타크루즈의 밤도 그리하겠죠.

October 3, 2014

할렐루야!
잘 풀으신 하나님에십니다. 권사님의 기
도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을 보라 하셨
나 보네요.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
도합니다. 복의 통로 되어주심에 감사드
립니다.

권사님, 저의 연약함을 많은 성도님께 드
려 내어놓는 거 같이 부끄러워요.

김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자광하게 하신 하
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보았
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 김사님이 헛되고
헛되며 헛된 삶 대신에 의미 있고 의미 있
으며 의미 있는 삶으로 더 차라라게 했을
을-- 그것은 김사님의 연약함을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의 강하심을 많은 분에게 말하
게 하신 것을 알게 해주심을 깨닫는 오후
예요. 주님께선 경직하시고 여러신 김사님
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은혜로운 가을을 이
루실 거예요. 임매누엘 성도들과 또 그 누
군가에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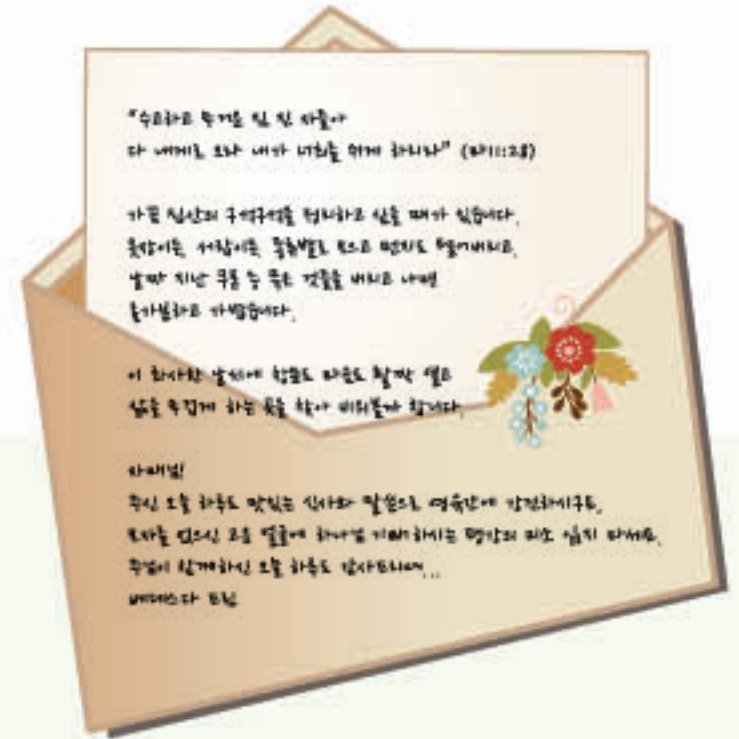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8번의 키모가 다 끝나고 회복 중에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걸음 한걸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와 주시고 혼자 설수 없을 때엔
뒤에서 붙들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자매님의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 드리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수술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화이팅!!!

찬양 한국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베데스다 드림



"수고하고 부거운 짐의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가끔 심산의 구렁이를 헐떡이고 산을 뚫어 씹습니다,
꽃산이든 서랍이든 풀밭이든 보드도 뚫어 씹고,
날짜 지난 무릎 누르는 것들을 버리고 내면
놓아달라고 가뭄입니다.

이 환이환 살신에 힘줄도 파문도 활짝 열려
산들 두집게 하는 것을 참아 버려달라 합니다.

아메인
죽은 도를 하루도 맛보는 신사와 말쑥으로 영육간에 감동하게구로,
복사를 입으신 고로 열매에 하나일 기뻐하시는 평안의 피로 삼지 마세요,
죽음이 함께하신 도를 하루도 감사하시어...
베데스다 드림

주님의 은혜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벌써 낯설지 않은 계절은 어김없이 오고 있네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감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늘 나라 가신 분들을 만나기 위함이겠지요.

나를 사랑해 주며, 오래 살아 줄을 알았던 남편이 가고나니
살면서 맘껏 사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함과 아쉬움으로 슬픈 세월을 보내며 많이 아파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 마음을 열어 주지 못했을 때, 베데스다부에서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글로
가끔씩은 추스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생명처럼 귀한 것임을 이 나이에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감히 이렇게 작은 사랑의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사랑하고 사십시요.
베데스다 드림.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쳐 주께서 속화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올해 교회 음악 아카데미를 열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예배 인도 찬양팀이 새로 생김도 감사 올립니다. 찬양이 그저 음악이 아니라 영혼이 주 안에서 뛰어나는, 주님의 영광을 온 몸을 통해 올려드리는 주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알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15년에도 임마누엘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악기를 울리며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여호와 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 찬양위원회 김병언 장로



시작이라 더욱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로서는 조금 욕심을 내었습니다. 고민을 하였어요. 제 성격상 항상 건진, 개혁, 혁신인데 주위의 많은 선배 장로님들의 만류에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인가 하며 고민하였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했으나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라 소속집단의 TEAM-PLAY가 대단히 중요하기에 좋은 사람들의 모임을 형성, 올해는 성경학교와 도서부의 전산화를 이루었고 지난 해에 이어 임마누엘지의 발행과 산상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으신 각 부서 부장 팀장들이 주님의 생각을 깨우쳐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나아감에 주님이 기뻐 마음으로 온종 배부심을 본 한 해였습니다. 성실과 열정으로 애쓰신 위원회 전 부원들의 가정에 복을 베푸신 주님, 일상의 평안을 베푸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역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해에 더욱 감사히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랑의 힘, 주님, 감사합니다.

- 신앙위원회 유택중 장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

새가족 부에서는 새로 오시는 새가족을 섬기며 움직여서 양지를 섬기는 부서로서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새가족 한 명 한 명을 목장까지 잘 정착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미 새가족 정착까지의 열정은 북가주 지역의 많은 교회가 배워가 시행하고 있으며 전도부, 미디어 전도부, 사랑양육부, 사랑심방부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교우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전도부 예수영결 모임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예수님 영결에 함께 참석했다 손목사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영결하고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된 일입니다.

- 전도위원회 채용석 장로



필요한 것을 살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2007년, 좀 더 나은 2세 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현재의 교회 건물로 이전 하면서도, 정각 초등부 학생들에게 적합한 의자를 갖춰주지 못했던 것이 몹시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7년 뒤인 올해 여름, 드디어 초등부 의자를 학생들의 신체 크기에 잘 맞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의 자세와 분위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새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생긴 주일학교 교사의 빈자리들을 더욱 많은 교사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 신앙교육의 사명을 더욱 열심히 감당할 것을 교육1위원회에 속한 모든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다짐해봅니다.

-교육1위원회 박준호 장로



감사할 것 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새삼 느끼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2위원회는 다섯 분의 사역자와 27분의 교사 그리고 두 분 부장 김사님이 열심으로 270여 명 중고등부 자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도록 주일, 토요일, 수요일 예배로 성경공부로 소그룹 모임으로 그리고 평일에도 아이들을 찾아 교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섬기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도 선교로 수련회로 일은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자녀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올해는 두 분의 교사들이 목회자로 헌신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배우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키워가는 우리 교육 2위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교육2위원회 이대희 장로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올해도 지역 봉사위원회 여러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밀알 장애우 후원, 무숙자 식사 대접, 몸이 불편하신 환우 및 노부모님을 위한 식사 대접, 양로원 방문, 암 환우 및 사별후 남은 가족 섬기기, 도박 및 알코올 중독자 치유, 어려운 행편의 가정을 위한 의료혜택 제공, 나아가 탈북민 및 비영리 지역사회 단체 후원 등의 귀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을 물질적으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힘써 나아가야 할 귀한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봉사위원회 부장님 팀장님 모든 부원 여러분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봉사위원회 전광수 장로

교회 살체의 곳곳을 보살피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의 관리 위원회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고 통성함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함께 관리 위원회의 사역을 감당하신 각 부장님과 팀장, 부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관리위원회가 교회 안 모든 베이비 시팅과 사무용품과 기자재의 통합구매를 시행하였는데 주님의 능력이 주심으로 거론해 갈 감당하신 행정관리부 부장과 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7년 된 우리 교회 건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하고 관리해 준 건물관리부 부장과 교회 웹사이트와 네트워크를 일사분란하게 처리해주신 IT부 부장과 모든 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묵묵히 동역해 준 행정, 관리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4년을 보내며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2015년을 준비하는 관리 위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 관리위원회 장흥 경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베트남, 중국, 인도 등 해외 3곳, 호피와 나바호인디언 등 국내 2곳의 단기선교활동으로 각 선교지에서 영혼구원의 큰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4분의 파송선교사, 14명의 협력선교사, 3곳의 협력단체, 7개의 후원 소수 민족교회 및 선교단체, 48명의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 세계에 주님의 영혼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임마누엘교회'가 더 많은 주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활동과 기도로 뜨겁게 타오를 것을 기대해 봅니다.

- 선교위원회 이재규 장로

주님이 주신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양위원회에서는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되심을 한 해 사역을 감사드립니다.

여성사역부에서는 디도서 2장 말씀과 같이 나이든 권사님과 자매님들께서 젊은 자매들의 멘토가 되어 그들의 버팀목과 바람막이가 되어 준 2014년 복된 한 해였고, 여성예배에서 믿지 않는 자매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에스더 프로젝트에 많은 자매들이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상담사역부는 주님께서 앞으로의 사역방향 인도와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께서 교회 행편에 맞는 상담도 우미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감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양위원회 백영진 장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와 주신 감사의 손길

친교위원회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와 주신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역에서 직결 도와 주신 분, 토요일마다 봉사해 주신 분, 솔선수범을 보여주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동등, 격려하시는 분들도 많았구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온 것이 하나님께, 또 성도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조사 열심히 챙겨 주신 경조부에도 감사드립니다. 내 입에 맛이 없는 것을 어떻게 드리겠느냐고 하시며 맛있게 하시려고 늘 최선을 다하신 친교부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살만 하구나!'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던 올해 친교위 봉사였습니다.

- 친교위원회 민경진 장로

베풀어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풍족하게 재정을 채워주시고 여러 사역을 잘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은행에서 요구한 매년 받던 감사(audit)가 review로 바뀌어 비용 결감분 아니라 교회의 성실한 운영 상태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재정 시스템도 잘 정리되어 넉넉히 채워주시는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도록 집행해서 화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재정 부원들의 가정과 건강도 넉넉히 지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 재정위원회 김홍규 장로



함께하는 평원 식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원과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들이 목장식구를 섬기는 것 뿐 아니라 교회의 많은 봉사를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원들을 보내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원 야유회에 예상보다 많은 목장식구들이 참석하여 밥만 남고 반찬과 고기가 모자라서 그곳의 바다가 드러날 정도가 되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서윤원 평원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한 해 열정의 젊은 목자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에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며 나이든 제가 오히려 배우며 도전받은 해였습니다. 목원들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과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젊은 목자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러나 제가 부족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커버해 주시며 채워주신 한 해였습니다. 주님, 젊은 그들과 함께 하며 배우며 자랄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 황의철 평원



섬기는 손길이 먼저 감사와 기쁨을 나눈 한 해 2014년 섬기게 될 사역을 준비하며 평원의 목장을 섬기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간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초창기부터 부족하지만 목장을 섬겨 왔기에, 목장의 중요성과 아울러 목자와 부목자가 경험하는 축복과 기쁨 그리고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목자/부목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며칠 한번씩 모이는 목자/부목자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기도하며 힘써 왔다.

시간이 흐르며 더 많은 목자/부목자들이 모임에 나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고, 함께 섬기는 목자/부목자들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즐겁게 고제하고 서로 기도로 격려하며 기획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를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헌신해 주신 모든 동역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내년에도 모든 목자/부목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며 또한 기다려지고 유익한 목자/부목자 모임이 계속 되길 기원한다.

- 최상훈 평원



목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2014년을 지내면서 평원 식구 중 슬픈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슬픔 가운데 영혼구원까지 이룰 수 있는 목장 섬김에 목자님들과 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평원에서 두 분의 새로운 목자님들이 임직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목자님들의 목장사랑 섬김 기대됩니다.

- 김태영 평원



사랑으로 묶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외 예배의 돌핀은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띄우게 느끼게 해 줍니다. 서로 모르던 목장 식구들이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리며 얼굴을 알고 마음을 알고 사랑을 나누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년에는 우리 평원 전 목장이 함께 모이는 야외 예배를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가지려 합니다. 각 목장이 밥을 지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큰 솥을 걸어 함께 밥을 나누는 멋진 자리를 통해 줄일 수 있으니 한 솥의 밥을 나누는 참 식구의 의미가 더욱 감사합니다. 각 목장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형제애를 나누고 자녀들을 위해 성경 퀴즈대회를 준비, 작은 선물을 주고 목자들은 소그룹에서 서로 듣고 배우고 칭찬해 주는, 명절 날은 친척이 모인 듯한 작은 잔치를 베풀고 위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 고정훈 평원



감사하는 마음 영어에 'Perspective is rea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시야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처럼 보인다'는 세상 표현입니다. 자신이나 주변에 어려움이 없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천국처럼, 나 혼자 힘으로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자신이나 주변의 힘든 상황 속에서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볼 때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014년을 돌아보는 박용갑 평원은 온통 가슴앓이와 어려움뿐입니다. 1년째 기도하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않으시는 J 권사님, 많은 기도 속에서 힘겹게 투병하시는 P 부목자님, 교통사고로 어려움 당하신 P 목자님, 내년 3월이면 죽게 된다는 Donald Beachey 그리고 실직,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노심초사. 끝없이 밀려오는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보다는 현실의 무게에 억눌린 채 우리의 무기력함을 절실히 깨닫는 그 순간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배우는 순간임을 느낍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이 많은 역경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는, 또 매달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의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이 2014년 또한 감사합니다.

- 박용갑 평원



성령의 비전과 영혼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혼 평원에 온 축을 부으시고, 영혼 어린 신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임마누엘 교회에 덕이 되는 평원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평원 목자님들, 찬양팀, 간호팀, 주방봉사팀, 처량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 청년에 귀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찾고, 거룩한 백성으로 힘써 살려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비전 청년들을 목자로, 팀 leader로, 하나님의 leader로, 하나님의 영웅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 김현준 평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대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빛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텅텅이 스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어도
내 신앙 부에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리며
운명이에 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혼돈 어둠계만 보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혼돈 어둠계만 보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복음이면 다 된다’



나는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 시대가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임을 알게 됐다. 나는 이것을 통해 이 시대의 영적인 실상과 초대교회를 세운 원형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다. 그 이후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의 명예와 우리 교회의 성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운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면 다 된다!' 는 큰 확신을 갖게 됐다. 오직 복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많은 프로그램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면 사람이 변화되기에 충분하다. 20여년의 목회를 하면서 나는 다른 많은 목회자들처럼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지, 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봤다. 강한 훈련도 시켜 봤고, 성령의 능력 측면도 강조해 봤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변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장 큰 고민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

예수를 주인으로 믿었더니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생명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행전을 다시 봤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부활로 재조명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굴복했다. 내가 주인 되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었더니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생명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다. 많은 지식을 알고 강한 훈련을 받아서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과연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온다. 심한 우울증, 자녀 문제, 부부 관계의 문제, 이혼 문제, 게임과 마약, 알코올 중독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회 부적응의 문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다 있다. 이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앞으로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들의 삶이 '복음' 하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배 시간마다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요 16:28).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지역을 방문해도 사적을 남기고 가는데 하물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그냥 가셨겠는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고 가신 것이다(히 2:14~17).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합쳐도 전능자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 전능자가 왔다 가시면서 이루신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김성로 목사(춘천 한마음교회)
성령행전 시리즈 중에서 발췌

사도 바울 이야기



사울의 외모

위경인 바울과 테글라 험전 (Acts of Paul and Thecla)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몸은 작고 대머리요, 등이 굽었으며 헛헛하고 치켜 올라간 눈썹, 높이 솟은 코, 그러나 매우 친밀감이 있는 사람. 처음에는 범인같이 보이나 다시 보면 한 천사의 얼굴을 가졌더라."

"너희는 외모만 보느니라 (고후 10:7)" 라고 바울이 말한 내용대로, 외적으로 풍기는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을 당했던 바울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쓰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바울은 AD 46년경부터 66년경까지, 당시 로마제국에 살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역에 쓰임 받았다.

사울의 출생지 다소

사울은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에 위치한 다소 (Tarsus)에서 태어났다. 고대의 바벨론 도성과 같이 도시의 중앙을 키두누스 강이 관통하는데, 그로 인하여 다소는 매년 강이 범람하는 홍수의 도시라고 불리게 되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제국의 분열과 함께 셀루코스 왕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BC 321-282경), 학문과 문화의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로마시대에는 그리스 지역의 아테네와 견줄 만큼 많은 석학을 배출하는 학문의 도시로 발전하였고,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의 대장군 안토니우스가 사랑을 나누었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BC 41년경).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배와 관련된 장막업에 종사하던 상인이었던 아버지로 인하여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울은, 대부분의 유대 소년들과 같이 장막 짓는 일 (a tent-maker) 을 배우며 자랐다. 그 후 성장하여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저명한 바리새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에 유학하게 되었으며, 그가 배운 뛰어난 학문으로 말미암아, 헬라계 유대인 (Grecian Jew)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Sanhedrin) 공의회 의 가장 촉망 받는 젊은이로서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에서 점차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자라 (행 22:3)."

사울의 등장

사울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오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때이다. 스데반의 순교로 이 핍박자의 양심은 매우 괴로웠던 모양이다. 그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포기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가시채 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 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행26:14). 지식이 있다는 사람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는 더 큰 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울의 개심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의 많은 사건 가운데에서도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행9:1-2). 그런데 그는 그 후에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행9:20). 바울은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매번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우리는 바울이 신약 인물들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회심했고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에 관한 최초의 필기식 계시를 주신 것도 바울이었고, 교회의 교리를 위탁하신 것도 바울이었다. 바울은 특히 어느 백성에게로 보냄을 받았을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이, 그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도였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행13-28장)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기독교인에 대한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안디옥까지 갔다. (행 11:19-21) 혹은 어떤 사람은 그때의 기독교를 가리켜 "두 성을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이야기"라고 한다. 행12장까지 우리는 베드로를 지도자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으나, 행13-28장에서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된다. 안디옥은 새로운 활동 무대로 성경에 등장한다. 바울의 놀라운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모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리하여 안디옥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명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기독교인들은 자연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지게 되었다. 이 초대 교인들은 어떤 행편에서도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하여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행11:21), 그곳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 불리게 되었다 (행11:26).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바울에 대해 거의 잊고 있을 때 바나바는 잊지 않고 사울을 찾은 사실이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의 생애는 것처럼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또한 바울과 같은 인물을 찾지 못하였다면 세상은 얼마나 큰 손실을 보았을까! 지금도 우리 주위를 포함하여 세상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유소진 목사



CM Vision

What is vision? A quick reference to the dictionary reveals the meaning of vision as "the act of sensing with the eyes." However, I would like to suggest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word. I remember taking my driver's license exam when I was a teenager. Part of the examination was to look through a device that measured my eyes' ability for depth perception. The DMV wanted to be sure that I could see the difference between objects closer to me and objects farther from me. That's obviously something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driving. Without this ability, it would be nearly impossible to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without being harmed or causing harm.

Could the same be true for life itself? Life has often been described as a journey. The Bible even describes Christians as "strangers" on earth (Hebrews 11:13-16). Life is not to be treated as a destiny, but a journey unto our final destination: heaven – the place of our eternal citizenship (Philippians 3:20). I've already made the case that good vision is an absolute necessity when it comes to driving. Then how much more for navigating life? One popular song from the 90s aptly puts it this way: "life is a highway." On the highway of life, are we "driving" or living with good vision or with poor vision?

How about in the ministries of our church? How about in Children's Ministry (CM), which serves the 2nd-5th grade children? What is CM's vision? CM's vision statement reads: **"To partner with parents in sowing seeds of God's truth, especially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the hearts of the children so that they will grow to know, love, and serve Jesus to the glory of God."** I realize that this is a run-on sentence, so let me break it down for us one phrase at a time. I'd like to start at the end of the vision statement.

First and foremost, our vision in CM is to glorify God. That is the end game. Nothing we do can be called worthy or good if we haven't pointed to the worthiness and preciousness of God himself. We want God to be exalted and highly lifted up in everything we do at CM. This should be a given for any ministry, but this phrasing exists in our vision statement so we don't forget that it's all about God. God can be glorified in many ways and in CM we want to emphasize his glory in the salvation and discipleship of the children. When we look at the children, we have a vision for them to grow. With our physical eyes, we anticipate the children to grow physically in height and strength. We also have spiritual eyes, with which we hope to see the children grow spiritually in their dependence and trust in their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This vision goes beyond producing well-mannered, beneficial-to-society, parent-honoring, self-sustaining, law-abiding, responsible adults. Our vision may include these things, but ultimately it is far more hopeful. We want what God wants, that is, disciples of Christ (Matthew 28:18-20).

Do you see how this one aim amplifies the description I gave you just a few sentences back? Instead of well-mannered, we're aiming for Christ-like disciples. Instead of beneficial-to-society, we want to see disciples who are helping to expand God's Kingdom. Instead of mere parent-honoring people, we have a vision for disciples who honor all people, rich and poor, friends and strangers. Instead of self-sustaining, we want to see self-sacrificing disciples. Instead of law-abiding, we want to see disciples "outdoing" each other in good works (Romans 12:10). And finally, instead of responsible adults, our aim is to see men and women of godly character. We want to see the children who come through CM be saved (i.e. become disciples) and live by faith trusting in their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The next phrase of our vision statement explains how we do this practically. We seek to sow seeds of God's truth, especially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the hearts of the children. Every Sunday, we (volunteer teachers and I) spend about 1.5 hours with the children in CM. We consider this short time to be a precious time of planting the truths of the Bible in the hearts of the children. I do this through preaching God's Word and the volunteer teachers do this by helping the children process what they heard from the sermon in class. We consider the gospel itself to be the foundation of all that we teach.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Romans 1:16). Without the gospel touching the hearts of the children, none of the truths about God will matter in the end. Furthermore, our labor requires great patience in the one "who gives the growth" (1 Corinthians 3:7).



So praying is as important, if not more important, than our teaching. Let me use this opportunity to ask you to pray for us. Without your prayers, our ministry will be powerless and our vision will never be actualized. Pray for our labor and pray that God will work through us. We covet your prayers for us! Lastly then, we come all the way back to the beginning of our vision statement: "To partner with parents." This phrase exists at the very beginning for a very specific reason. I want to make sure that parents, you realize that we (volunteer teachers and I) are not here to be surrogate-parents to your children. God has not laid the responsibility of raising your children in the faith on us or anyone else. Rather, the task is appointed to you (Deuteronomy 6:4-9). However, we want to partner with you. We want to support you in whatever way that we can to help you fulfill your God-given role as parent. It is no small task to parent, but you are not without help. So in some ways, CM is for you as much as it is for the children. Please remember though, **how you raise your children in the faith will be a thousand times more meaningful and impactful to your children than we can ever be in CM.** Take courage, our God is with you!

I hope that this letter has served to give you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vision for CM at Emmanuel. Thank you for supporting us in all the ways that you do. May our God bless our children in every way! In Christ, Pastor Dan So. -CM Pastor, Daniel So



함께 읽는 동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옛날 옛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를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 어떤 신령감을 구해 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공주의 신령감을 찾아낼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가져오는 이가 나의 딸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멋진 왕자들이 귀한 선물을 갖고 찾아왔지만, 왕은 신령감을 뽑지 못했습니다.

이웃 나라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형은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렌즈를 준비하였습니다. 둘째 형은 나는 양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에는 레몬을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레몬이래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그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레몬이 정말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나요?" "물론이고말고."

막내는 금 한자루를 주고 레몬 한 개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형들은 보잘것없는 레몬 한 개를 금 한자루와 바꾼 동생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제 왕의 궁전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째 형이 렌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렌즈 속으로 몹시 아파 침대에 누워 죽어가고 있는 공주가 보였습니다.

"빨리 서둘러야만 해." 첫째 형이 말했습니다.

"좋아, 내 나는 마법 양탄자에 올라타!"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세 형제는 양탄자에 올라탄 즉시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공주님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막내가 공주의 방을 지키고 있는 호위병에게 말했습니다. 공주에게로 안내된 막내는 레몬을 쥐어짜 즙을 공주의 입속에 떨어뜨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공주가 밝은 웃음을 띠며 눈을 떴습니다. 레몬이 정말 그녀를 살려낸 것입니다.

왕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세 형제가 궁전에 온 까닭을 물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형은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가장 귀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은 첫째와 둘째 형에게 말했습니다. "네 멀리 보는 렌즈가 공주가 아픈 것을 처음 발견해 내었구나. 네 나는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으니 미리 빨리 날아올 수 있었던 거고, 정말로 신기한 선물들인 거야!"

너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왕은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막내는 즙을 짜고 남은 레몬을 보여 주며 말하였습니다.

"새것도 아니고 신선하지도 않지만, 이 레몬이 제 선물입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보잘것없는 선물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주가 말했습니다.

"멀리 보는 렌즈와 나는 마법의 양탄자 모두 아주 훌륭한 선물이지요. 두 사람에게 감사드려요. 하지만 레몬이 내 목숨을 살렸는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목숨이니 레몬이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닌가요?"

그래서 공주와 막내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영 죽을 내 목숨을 살리신 그분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터키 전래동화





사랑 공동체 이야기

NLCF

NLCF, 이곳은 Help people become devoted followers of Christ through a relational environment of grace and truth. 예수님을 좇는 우리의 공동체이다. 주소는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이다. 낯익은 곳이다. 그렇다. 우리가 EM이라 부르는 한 지붕 두 가족쯤 되는 그들의 예배를 찾았다. Sister Church라는 말도 있고 우리는 흔히 형제교회라 부른다. 우리가 EM이라 부르는 NLCF는 자녀들의 교회, Children Church 쯤 되지 않을까?

예배는 'How Great is Our God'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동영상의 세계 여러 말 버전이 있다.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쁜 이들의 찬양이 각 나라말로 울려 퍼진다. 멋지다. 신이 난다. 대부분 젊은이인 NLCF 예배는 그렇게 활기찬 진중함으로 시작되었다. 주님과 함께 어느 곳을 볼 것인가. 완전한 행복, 내 눈을 닦아주실 주님, 그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다섯 곡을 노래했다. 기다림은 소망이란다.

기다림은 기다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란다. 그들의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은 내겐 두 번째 언어인 영어로도 간결히 들렸다. 가슴 벅차게 울림이 있다.

이민국 목사님(Steven Lee)의 설교는 'Road to Maturity' 시리즈 중 5번째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대한 삶의 실천이었다. 다른 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혹은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모셔가기, 그것은 삶의 모든 관계의 국면에서 내가 예수님과 어떤 이의 중간 다리가 되어 주는 것.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도움을 받길 원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에 충실히 응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길 잠잠히 기다림, 이것이다.

예배의 끝, 방문자를 위한 Response Card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소개할 사람 이름을 적어 냈다. 이민국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올려 주실 것이다. 그 주에 떠나는 월남 단기 선교팀을 위해 어떻게 후원할 것인지, 기도나 물질이나 내년도 시간 헌신 등도 카드에 적어냈다. 현금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다. 세상에 가장 귀한 hidden card, 그는 모르는, 훗날 그를 예수님 앞에 서게 할, 그날 나는 또 하나의 hidden card를 보았다. 이 땅 최후의 병기 같은, 우리 2세들의 교회. 물이 설고 흙이 선 이곳에서 모퉁이 둘 예수님 위에 우뚝 설, 미국의 주역인 자녀들의 교회.

팔을 꼬집어 보라, 또 내 결의의 팔을 슬쩍 꼬집어 보라. 그는 나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의 정도와 크기와 내용이 다를지 모른다. 하지만 그도 분명 아플 것이다. 호들갑을 떨거나 묵묵히 눈물을 짚금 거리거나, 분명 그도 아프다. 내 손톱 밑 가시때문에 아파 펄쩍 뛰는 오늘, 그는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할텐데—, 그의 영혼이 돌아올, 여동에서도 빛나 그의 눈에 될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할텐데—.

New Life Covenant Fellowship
Pastor Steven Lee eelnevets@gmail.com
Pastor Eugene Kwon eugene.kwon@gmail.com





감사로 인생의 겨울을...

지그시 감은 흐린 눈빛 안에 가득 담긴 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어 다시 멈추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주 찾아뵙겠노라 말씀드리는 나에게 고개만 두어 번 끄덕이시며 "바이"를 하신다.

천하를 호령하시던 군인 장교로서의 젊은 날의 패기도, 예쁜 윌피스에 긴 머리 내리고 교정에서 재갈 거리던 젊음의 향기도 세월이라는 수레가 데려다 준 현실 앞에서 장사가 없나 보다. 외로움이라는 한 단어로 집약된 양로병원에 계시는 에녹 부모님들을 찾아볼 때마다 맥없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는 듯 늘 가슴이 시리고 아프다. 두 평 남짓한 공간에 계시면서도 '걱정 없다, 편하다, 감사하다' 찾아볼 때마다 자식을 불편함을 들어주기 위한 속마음을 감춘 채 이곳이 정말 편하고 좋다고 하신다.

성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면서 가을 인생을 걸어오셨고, 인생의 겨울을 나면서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삶을 베풀고 나누시는 분들이다.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된 겨울 인생을 지내시는 에녹 평원 분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분들 같다. 작은 것에 늘 감사하는 분들이다. 창릉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며 감사하는 분들이다. 누군가가 한번 손잡아 주는 것에 감사하는 분들이다. 정신력이 약해지면서도 예수님이란 말에는 거침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다.



100세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면 에녹 평원은 겨울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다. 봄에 열심히 씨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겨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농부의 삶이 어찌면 인생사를 한 줄로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각을 열어 배움의 봄 인생을 보내고, 피 끓는 젊음으로 가능성의 모든 것에 도전했던 여름 인생을 보냈던 분들이다.

잠자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흑시 의식이 없는 시간이 울지라도 이분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미래의 겨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을 미리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기도를 드린다.

- 에녹평원 이에스더 전도사



사랑하는 시현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안에서 건강히 잘 지낸다. 소라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 너희가 계속 보내주는 비타민과 한약을 잘 복용하고 있다. 무뎠던 날씨가 좀 시원해졌구나.

할머니가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어렸을 때부터 네가 자라던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감정이 얼마나 예민한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할머니가 너를 안고, '울 밑에 선 봉선화' 노래를 부르면, 너는 입을 뻐죽뻐죽하면서 울려고 하였어. 너무 예쁘고 귀여웠지!! 네가 걸지도 못해 보행기 타고 작은 상촌 앞에 있을 때 화가 나 있던 삼촌은 너를 방 벽 쪽으로 확 밀어 부딪히게 하였는데도 너는 울지 않고 보행기를 타고, 다시 걸어 상촌 앞에 다가와 삼촌의 기분을 풀어 주려고 웃으면서 삼촌의 얼굴을 바라볼 때, 삼촌도 웃지 않을 수가 없었지.

또 할머니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전 100원 하나라도 뛰어가서 주곤 했지. 또 생각한다. 니 초등학교 다닐 때 폐품을 열심히 모아, 견고에서 1등을 해서 TV 방송에 너의 모습이 방영되었던 일이 생각한다. 너의 절약하는 생활 모습이, 너의 어린 시절의 성품이 성장하여 나아가리라 생각한다. 언제나 너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의로인으로 어디서나 화목하는 아름다운 덕을 쌓고 봉사하는 생활에서 보람을 가지기를 바란다.

시현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원하면 너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새겨 기도하기를 바란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자! 이만 그치겠다. 잘 지내거라. 안녕!

2014년 9월 25일
할머니, 조은숙

보고 싶은 할머니에게...

지금도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는 바쁜 가운데 피곤하지만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소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매일 기도 드리고 있고,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기도 드리고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저를 사랑으로 길러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오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난번처럼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도 같이 보고, 좋은 데도 구경 가자구요.

옛날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자주 생각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주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시현이 초등학교 졸업은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할머니가 "시현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봐야 하는데..." 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 주님의 은혜로 지금 저는 서른다섯 살이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할머니, 지난번 산호세 오셨을 때, 이가 많이 좋지 않아서 치과에서 치료받게 되었잖아요. 그 이후 할머니가 걸었을 때를 회상하시면서 할머니의 할머니가 이가 없고 항상 부드러운 것만 드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시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두 분만 계시는 것이 격격하고 답답하실 수 있지만, 항상 성경 말씀과 함께하시는 모습을 그려 보아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길 원해요.

2014년 10월 1일
손자, 이시현

사랑하는
시현에게...



..... 보고 싶은
할머니에게



사랑의 빛진 자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빛에 관하여는 우리는 서로 채우자가 되기도 하고 또 채권자가 되라고 권명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랑의 빛진 자로서 경험이 많이 있지만, 항상 잊지 않고 나를 붙들 어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4년 전 한국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2주간 입원을 하였을 때 저는 병상에서 작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동행하지 못한 터이고 한국에 있는 제 형제들이 저를 간병해야 하는데 모두 사정이 허락지 않아 저는 부득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이어서, 병원 사물함에 붙어 있는 간병인 전화번호 중 하나를 택해서 연결된 분으로 간병인이 경계였고, 수술 후 첫날부터 저는 그분의 간병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소개로 제가 미국에서 주의 일을 하는 교역자로 소개되었고 그분도 크리스천이라 성심껏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늘 병원 밖의 숲을 볼 수 있도록 자세를 바꾸어 주고, 고물스러워 할 때는 제 손을 붙들고 기도도 해 주시고, 밤에는 새우잠을 주무시며 내가 아파 뒤척일 때마다 벌떡 일어나 같이 잠도 못 주무시고, 뉘어놓고 머리도 감겨 주시고, 문

병인들이 감사의 사례를 하면 즉시 나가서 그 돈으로 계계 그리고 간병하며 필요한 것들을 사오시고... 참 친절하신 분으로 여기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같으신 분을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처음이고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인지라 그냥 감사하게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1주간을 여동생이 간병을 하기로 되어 간병인의 1주간 계약기간을 마치는 날 수고의 사례를 드리며 고마움으로 그분과 작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분이 다시 병실로 찾아오셔서 동생한테 받은 사례비를 내어 놓고서... 몇몇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 아단맞았다고 하시며 주의 종을 그냥 돌봐드리지 못했음을 지적받고 회개했다고... 사례비를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황당하여 아니라고 극구 말했지만, 막무가내인 그분의 고집을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자신의 생업의 1주일 전부를 주의 이름으로 계계 드린 것입니다. 예전부터 알던 사이도 아니고 단지 간병인과 환자로 만난 사이인데, 그분은 과부의 두 헛돈처럼 자신의 소중한

“되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골 13:8)

한 것을 다 내어놓으며 미국땅에서 온 나그네 같은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이관대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다 표현할 수가 없었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태껏 사는 동안 이 분처럼 이렇게 이웃을 내 소중한 것 다 드리며 내 생업까지 다 드리는 이런 사랑을 행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늘 최소한 드리고, 아단맞지 않을 정도의 모범만 보이며 살아왔던 저, 이웃에게 말할 수 없이 인식했던 저를 발견하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25:40) 말씀대로 사는 참 신앙생활을 하신 그분의 모습을 그 후 늘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빛진 자’ 되어 본 저도 말씀대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 주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데로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자의 모습이 때로는 공동체 안에 상처받은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족의 모습으로,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모습으로 저와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임을 알아 오늘도 사랑의 빛을 갈아 가는 삶이 되길 소원해 봅니다.

- 김혜경(여성사역부 담당전도사)

천국에서는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질까? 어떤 장르의 음악과 어떤 악기들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늘 궁금하고 알고 싶다. 하지만 천국에 가서 그 사실은 확인될 것이고 그 이전에... 이곳은 세상, 내가 현재 잠시 속한 곳이다. 그렇다. 세상은 넓고 음악은 너무 많다!

너무나 많은 노래와 음악들, 연주곡들... 그런데 흥수가 나면 경작 마실 물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몇 번 들으면 그 음악이 그 음악이고 이내 식상해진다. 그런데 여기, 틀을 때마다 여전히 내 온 맘을 확 잡아끌어 하나님 앞에 '픽!'하고 무릎 꿇게 하는 곡이 하나 있다. 몇 년 전 내가 사랑하는 1부 시은 찬양대와 함께 이 곡을 합창으로 찬양했을 때에도 벽천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했던 그 곡! Ken Medema의 모세(Moses)가 바로 그 곡이다.

켄 메데마가 아주사 대학에서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부른 모세(Moses)를 듣고 있노라면 나는 마치 영화 'Back to the Future'에 나오는 타임머신을 타고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벌어진 그 현장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 견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되어 이에 힘이 들어가고 추억이 불끈 켜어지면서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신기하게도 음악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과 향기와 깊이가 고스란히 배어 나온다.

작곡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켄 메데마 본인 자신이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가족들의 끈질긴 사랑과 격려로 정상인처럼 교육받고 마칭

내 음악 치료사로, 찬양 사역자로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덕을 열방에 선포하게 된 극적 스토리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음악 치료사로서 만나야 했던 수많은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을 통해 치료자 되신 견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인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다니 한번 꼭 만나 곡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다. 왜 이토록 좌악 가득한 사람 님새를 쓴 풍기는 꼭 나 같은 모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버리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써 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절절히 이 곡에서 배어 나오는지를...

현재 잘 나가던 이집트 왕자였다가 살인자로 전락, 미디안 광야의 80년, 인생의 황금기가 다 썩어 버렸

https://klog.scopelogistudio.com/2010/11/new-book-project.html



다! 이제 가진 건 초라한 지팡이 하나에 몸을 기댄 무기력과 자책감으로 어그러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 "나는 못해요!!" 시종일관 누가 모태(못해!!) 신앙 아니랄까 봐 계속 못한다고 주장하는 모세, 그런 모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뽕으로 변하게 하시고 상식과 통섭을 벗어나 모세가 뽕 꼬리를 잡았을 때 비로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바로왕을 무릎 꿇게 한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 상식과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넘어서서 당신의 완전하신 인도 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진다.

이제 알겠느냐 모세,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세. 모세의 지팡이, 주의 것 되었네. 주의 지팡이로, 물과 바위를 치게 되리. 주의 지팡이, 바닷물을 가르리. 주의 지팡이, 바로왕을 죽이리라. 주의 지팡이로, 네 백성을 구하리. 왜 너는 지금 미뽕거리나, 또 무엇이 두려운가. 너는 주만 의지하라, 주 하나님을. 지팡이 잡고서 떠나라, 애굽에, 내려가...

굶임없이 씹는 나의 불신앙과 열등감,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나의 견고한 자아 앞에 하나님은 굶임없이 말씀하신다. 네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내가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한다고, 무엇을 하겠다고 절대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우리는 보고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켄 메데마는 이 극적 반전의 서사시를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 피아노와 사람 목소리 하나가 이렇게 화려한 한편의 뮤지컬처럼 표현될 수 있을까?

삶의 굴곡들, 굶이굽이 깊은 나락과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덜 때마다 이 찬양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아굽과 다윗과 모세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대하게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분이 인생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절대적 주권적 사랑과 은혜를...

-1부 찬양대 지휘자 설경선

'준비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은 예배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입니다. 찬양 순서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피곤하여 지친 성도들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달래고, 때로는 흥을 돋우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 무대에 나와 회중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며 음악과 멘트로 감정을 자극하면서 예배를 위한 위밍업을 한 후에 무대 뒤로 사라지는 오프닝을 맡은 예배 전 도우미가 아닙니다.

찬양시간은 성도들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의 음악성을 과시하기 위한 잘 차려진 무대도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전에 손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준비 찬양이란 없습니다. 준비 찬양 또는 준비 찬송은 예배의 중심이 설교에만 치중되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낳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설교만이 아닙니다. 설교만 들으면 되지하는 편협한 예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예배 시작 후 느지막이 들어와도 전혀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예배 시작 후 느지막이 들어와도 전혀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교감과 소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교감과 소통이 설교 시간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만 들려지고 선포되고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대표 기도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옵니다. 어떤 날은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과 메시지를 쓴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축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도 있습

니다. 어떤 날은 입구에서 환하게 맞이하는 안내자의 표정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 안에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성도님들의 말 속에서 종종 들려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매주 예배 전에 하는 준비 찬양시간이 참 좋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게 돼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집사님의 마음과 중심의 의미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일일이 그럴 때마다 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공유해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을 단 한 개만 열어놓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배에는 설교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얼마인 베델 한인 교회에서 찬양 목사로 사역 중이신 경유성 목사님의 글을 참고로 정리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 김우찬 (2부 예배 찬양 인도자)





저희 집 추수감사절 식탁에 꼭 오르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애플 파이와 고구마 파이죠. 더불 오븐 한군데서 칠면조가 노릇하게 구워지는 동안에 다른 오븐으로 파이를 구워내면 정말이지 집안 가득 행복한 냄새가 구석구석 퍼집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파이를 굽는다는 것만으로도 괜히 들떠서 말이 많아지고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그저 많은 디저트 중 하나일 뿐인데 애들이 유달리 좋아하는 이유를 말여요.

침착컨대 태어날 때부터 곱한 모든 추수감사절에 그 냄새와 맛이 기억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전 가끔 귀찮아지다가도 마음을 돌려 파이를 굽습니다. 아이들 유년 시절의 행복한 기억이 하나 더 늘어나고 더불어 그 속에 조금이나마 엄마의 마음이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엄마표 파이를 만들어볼까요? 파이 크러스트부터 만들자고 하면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아주 쉬운 방법을 소개하지요. 이미 만들어진 냉동 파이 크러스트를 사용하시면 일이 절반은 쉬워져요. 준비된 파이 크러스트 위에 파이 속을 채워 구우면 되니까요. - 최윤미



임마누엘 레시피 1 애플 파이와 고구마 파이

• 고구마 파이: 9인치 크러스트 1장, 미국 고구마 800g, 커스타드 크림 350g

- 고구마를 찌서 커스타드 크림과 고르게 섞어 파이속을 만든다.
- 9인치 크러스트 1장을 파이 틀에 펼치고 포크로 공기구멍을 여러 군데 낸 뒤에 파이 속을 채워 390도에서 50분간 굽는다.

• 애플 파이: 9인치 크러스트 2장, 아몬드버터 30g, 커스타드 크림 200g, 사과조림

- 크러스트 한장을 파이 틀에 펼치고 공기구멍을 낸 뒤 아몬드 버터를 고루 바른다.
- 커스타드 크림을 한층 고르게 잔다.
- 사과 속을 커스타드 크림 위에 전부 얹는다.
- 남은 크러스트 한 장을 막대 모양으로 잘라 격자무늬로 얹고 390도에서 50분간 굽는다.

• 아몬드 버터: 버터 30g을 실온에 두어 부드럽게 한 뒤 아몬드 가루 15g을 넣고 섞는다.

• 커스타드 크림: 노른자 3개, 설탕 90g, 밀가루 20g, 콘스타치 20g, 우유 500g, 버터 10g, 바닐라향 ½tsp

- 믹싱볼에 노른자, 설탕, 밀가루, 콘스타치를 순서대로 넣고 고르게 섞은 뒤 우유를 붓에 올려 막 끓기 시작할 때 믹싱볼에 부어 계속 저어주고
- 다시 볼 위로 옮겨 약한 불에서 계속 저으며 크림 상태가 된 뒤에 버터와 바닐라향을 섞은 뒤 넓적한 용기에 옮겨 식혀준다. 한 김 나간 뒤에 랩으로 씌워둔다.

• 사과조림: 사과 750g, 설탕 80g, 레몬즙 2T, 건포도 1/3C, 계피가루 2tsp

- 껍질과 속을 제거한 사과를 얇게 썰어 준비하고 다른 재료를 섞어 조리한다.



꽤 오래전 한국에서 방송되던 '오늘의 요리'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것은 매년 그 프로그램을 보며 하시던 친정 어머니의 혼잣말 때문입니다. "저런 재료를 써서 뭐가 맛이 없을까!", "에구, 아깝게 저걸 다 버리네..."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 역시 똑같은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두 분이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 바싼 재료를 사서 과감하게 다듬고 모양낸다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만든 요리에 거부감이 드는 것은 우리 어머니 세대에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평범한 재료로 특별한 음식을 만드시던 어머님들을 추억하며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식탁에 올릴 수 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결들이 야채 요리'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맘때 많이 나오는 꼬마 양배추처럼 생긴 싹양배추(Brussels Sprouts)는 향암 야채로 알려진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보다 더 많은 향암 성분을 갖고 있고 요즘 많이 관심 갖는 디톡스의 효과도 뛰어난 슈퍼푸드입니다. 특유의 향과 쓴맛이 있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래의 방법으로 조리하시면 꽤 먹을만한 요리가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 최윤미

임마누엘 레시피2



싹양배추 (Brussels Sprouts) 볶음

재료:

1. 베이컨 200g, 다진 양파 1/2컵, 냉동 낱알 옥수수 1/3컵, 칼라 피망 다진 것 1/3컵, 소금, 후추
2. 싹양배추 450g(1파운드), 약간의 버터와 다진 마늘, 치킨 브로스 120g

*준비:

싹양배추는 꼭지를 다듬어 씻고 작은 것은 통째로, 조금 큰 것은 반으로 갈라놓는다.

조리순서:

1. 베이컨을 구워 키친 타월에 얹어 기름을 빼고 잘게 썬다.
2. 팬에 약간의 베이컨 기름을 남겨 먼저 양파를 볶고 옥수수, 피망의 순서로 넣어 볶는다.
3. 소금, 후추로 약하게 간하고 따로 둔다.
4. 달궈진 팬에 버터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볶은 뒤 싹양배추를 넣어 센 불에서 1분 정도 볶는다.
5. 치킨 브로스를 붓고 뚜껑을 닫은 뒤 중불에서 치킨 브로스가 졸아들 때까지 7-8분 익힌다.
6. 조리된 1과 베이컨을 싹양배추 위에 뿌리고 뜨거울 때 한번 섞어준다.

스페셜
추수감사절 **Bingo** 게임

□ | 국에 처음 와서 맞이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기억이 모두 아련하실 겁니다. 뭔가 추석과는 다른 분위기고 미국 땅에 가족이 없던 시절이니 여기 오래 사신분의 초대를 받아 말로만 듣던 칠면조 고기와 크랜베리 소스, 그 맛 좋다는 캘리포니아 외인을 곁들이셨겠지요.

아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버지가 감사할 것들이 무한하여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싶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한 해 동안 못다 한 인사를 하는 미국대 명절 추수감사절, 크리스천으로서 더욱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지요. 괜히 Go나 Stop이나를 결정하느라 스트레스받을 일 없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가족이나 친척, 목장식구들과 어우러져 재미있고 감동스럽게 놀



수 있는 '추수감사절 스페셜 Bingo 게임'을 소개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있다면 이 게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그분들에게 직접 보여 드리고 같이 기쁨을 나눌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http://print-bingo.com/design-bingo-cards.php> 에 가서서 빙고 종이를 프린트하시고 게임의 타이틀을 적으세요. BINGO보다는 더욱 가슴에 와 닿은 **THANK** 나 **FAITH** 는 어떨지요? 보조 도구로 M&M 초콜렛이나 너트를 이용해서도 되겠습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에는 여러분의 빙고카드 위에 어떠한 감사와 희망의 그림들이 그려질지 상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을 등록 받으세요. - 편집부 제공

수상한 그녀



“이 시 부풀이란 아이를 아시나요? 그 아이가 틀이 조금 넘었을 때 큰 병에 걸렸죠.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밤새 아이를 붙들고 말했죠. 붙들어라. 붙들어라. 생명줄을 붙들어라... 그 후에 그 아이 이름은 부풀이가 되었어요...”

위는 '수상한 그녀' 말미에 나오는 아들(성동일분)의 대사 중 일부다. 극 중 오말순(나문희분)의 아들은 자신의 아명 연유를 위와 같이 설명한다. 큰 병에 걸린 어린 아기. 그리고 가난한 젊은 과부... 그들의 삶의 이유는 서로였으며 서로가 생명줄을 붙들어 주는 존재였다고 말이다.

지난 반세기 한국은 전 세계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OECD 가입국으로 그 위상이 변했다. 그 사이 식민, 분단, 전쟁을 겪었으며 가난한 국민이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의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단의 배경 중 하나도, 결국은 박정희 정권의 국가 개발계획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해 이뤄졌으며 광부와 간호사 독일 파견도 또한 그 맥락에서 이뤄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극중 오말순(나문희분)의 비극도 결국은 자신의 아들 임신 중 더 나은 삶을 위해 독일로 광부의 모습으로 떠나 보낸 남편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청춘 사진

관에서 사진을 찍다 마술처럼 50년 전 청춘 오말순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젊은 시절 꿈인 가수가 되는 기회를 우연한 기회로 얻게 된 후 처음 공중파 음악 프로에서 '하얀 나비' 노래를 부르는 젊은 오말순(심은경 분)의 회상으로 이 모든 내용이 잔잔히 흐른다.

절디절은, 빛바랜 양복을 곱게 입고 무말린 기름으로 머리를 곱게 정리한 오말순의 남편은 공항에서 수줍은 눈인사로 자신의 아내와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인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호강시켜 줄게. 내 젊음을 태워서라도 내 아내와 아이를 위해 희생하겠노라'고 말이다.



그 젊은 남편을 보내는 젊은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만삭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보내며 눈으로 말한다. "잘 지키고 있을게요. 이 자리에서 당신의 아이와 우리 가정요" 하고 말이다. 그러나 인생은 냉정하다. 젊은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독일에서 사고사하고 그 당시 남편 없는 여인

이 그리하듯 그녀 또한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게 된다. 감독은 그녀가 장터 채소 가게에서 채소를 다듬고 남은 시래기를 모아 담는 화면을 담담히 보여주며 감정의 고양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 감동을 남긴다. 감독은 마치 카메라 워크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자, 젊은 세대여. 이리 와서 보라. 그대들의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대들을 키운 삶의 자취를, 그녀들의 생존을 위한 저절함을, 그리고 그 강인함을..."

영화 초반에 그려진 늙은 오말순(나문희분)이 왜 그렇게 강한지, 말하는 모양이나 걷는 품새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남아있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가지게 했던 불쾌감이, 나무데 같이 남겨져 있는 생존의, 그 저절한 생명력의 흔적을 알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모달이 아닐까 한다.

영화는 경제하고 빠르게 잘 정리된 플롯으로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리며 그리고 감동하게 한다. 영화 마무리까지 젊은 오말순(심은경분)은 손자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보이는데 결국 삶의 의미는 생명을 나눠주는 근간임을 알게 한다.

이 영화는 '우리는 어떤 노년을 꿈꾸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옆에 계신 우리의 할머니를, 어머니를 다시 보게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게 한다. 감사하다고, 당신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게 했다고, "어머니, 할머니 감사합니다." - 최인애

세 번째 이야기 도시 속의 작은 농촌

2014년은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텃밭을 일궈 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분들이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직물별 농사법이 수확량에 직접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텃밭 운영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손쉽게 유기농 농약 만드는 법 몇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난황유는 해충의 호흡과 지방대사를 방해해 번식을 막는 천연 농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진딧물과 응애류 등 작은 해충에 효과적이며 흰가루병, 노균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1. 물 100mL 에 달걀노른자 1개를 믹서기에 넣고 1~2분 정도 갈아 줍니다. 여기에 식용유 60mL를 넣고 다시 5분 이상 갈아 줍니다. (기름방울이 작아야 분산이 잘 되고 작물에 잘 붙어 방제 효과가 좋습니다) 물 20L를 만들어진 액과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2. 1번의 방법보다 더 손쉽게 만드는 방법은 마요네즈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빈 통에 마요네즈 100g 과 마요네즈가 잠길 정도의 소량의 물을 넣고 상, 하로 세차게 흔들어 섞어 줍니다. 물 20L를 만들어진 마요네즈액과 섞어 줍니다.

10~14일 간격으로 분무기를 사용해 앞, 뒷면에 골고루 묻도록 뿌리면 예방 효과가 있고 5~7일 간격으로(1번 만드는 법으로 만들시 식용유 100mL를 사용합니다) 분무기를 사용해 앞, 뒷면에 골고루 묻도록 뿌리면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에 적합하며, 인체에 해가 없으므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독 효과와 아울러 균류의 활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딸기 잿빛곰팡이병, 고추 탄저병, 오이 흰가루병, 노균병 발생을 억제해 줍니다. 보통 약품 피는 곳에서 소독용으로 판매하는데 영문표기로는 'Hydrogen Peroxide 3%'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토끼 토마토-

1. 발아 과정이나 곰팡이 균류의 발생 시 물과 1:1로 희석하여 분무기에 넣어 스프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2. 작물에 직접 살포시 물과 1:10으로 희석해 7~10일에 한 번 살포해 줍니다.
3. 딸기의 잿빛 곰팡이병과 흰가루병에는 1:50으로 희석해서 1일에 한 번 살포해 줍니다.

은행나무는 벌레들이 들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이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유의 향을 벌레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기피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1. 믹서기에 1/3 정도 은행잎을 넣고 물 4잔 정도를 넣어 갈아 고운 망에 찌꺼기를 거른 물을 병에 넣어 보관했다가 사용합니다. 은행을 까고 남은 걸쭉질과 꿀물에 올라오는 상추 꽃대를 같이 믹서기에 갈아 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2. 기피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잎

액을 난황유 만들 때 물 대신 섞어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밤 기온이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11월이면 대부분의 텃밭 수확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겨울동안 텃밭을 잘 이용할 방법과 몇 가지 팁을 드리면 11월부터 1월 초 중순까지는 밭을 쉬게 하고 (쉬게 하는 동안 집안에 생기는 낙엽 등을 모아 밭에 넣어 줍니다) 1월 중순쯤 밭에 비료를 더 넣고 밭을 갈아 준 후 밭 전체에 갓, 열무 등의 씨앗을 뿌리면 3월쯤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갓김치, 열무김치를 맛있게 담급니다.

호박, 오이, 깻잎, 토마토, 콩, 고추 등의 씨앗들을 1월 말쯤 수건 파종을 하고 작은 화분이나 스티로폼 화분에 옮겨 심었다가 갓과 열무를 뽑아 김치를 담그고 잘 자란 모종들은 화분에서 밭에 옮겨 심습니다. 호박이나 오이의 경우 3월에 밭에 심으면 9~10월쯤 수확이 끝납니다. 때문에 저는 2/3는 3월 중에 심고 1/3은 5월쯤 심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오이와 호박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도시 속의 작은 농촌 칼럼을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텃밭 계획을 잘하셔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배어있고 유기농 재배 작물들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실리곤벨리의 농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병진



토마토 밭에 찾아온 반가운 불청객

우리는 닭은 꿀



비전 청년부에서 3년째 목자로 섬기고 있는 목자로서는 최연소자 박지혜입니다. 부족한 제가 목자로서 청년부를 섬길 수 있도록 저보다 먼저 청년부 목자로 섬겨주신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매주 리더 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보형, 김승환, 이요셉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처음 목자로 임명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장을 섬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한가지는 '안드레의 영성'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해 온 안드레처럼 저 역시 저를 통해 주님께 인도된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저보다 더욱 귀한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은 가족을 떠나 홀로 이곳에서 공부하기에, 비록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한국 음식과 한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회에 쉽게 발을 내딛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 만나는 유학생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따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 먼저 그들의 이름을 알려 드린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노라면 어느새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 입마누엘 비전 청년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의 목원들도 저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와우 어썸"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원조차 연이어 또 다른 지체를 교회로 인도해 오는가 하면 심지어 몇 주 전에는 지난번 목장에서 저의 목원으로 계시던 지체가 본인은 산호세를 떠났는데 사촌분을 저



의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닮는 것 같아 참 기쁘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장은 초신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피크닉이 있었던 지난주에는 저희 목장 식구가 무려 17명이나 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아직 금요일 밤에 열리는 HOLY FIRE 예배에는 적은 숫자가 참석하지만 제가 먼저 주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면 성령님께서 저희 목원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초신자가 많아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박2일 야영도 방학을 이용해서 함께 떠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밥도 해먹고 밤하늘의 별빛 아래 둘러앉아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멋진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정기적인 목장 모임은 주일 비전청년 예배 후 가집니다. 간단한 디과와 함께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목장 모임을 합니다. 주일 설교시간에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 교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다소 어색하기도 하지만 함께 떡을 떼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나누노라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비록 교회 올 때의 이유는 유학생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왔을지라도 주일마다 드리는 비전 청년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유능한 리더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복음중의 복음입니다. 리더로서 훈련받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고 학업과 일로 인해 몸이 피곤할 때에도 감사로 제 마음을 채우게 하셔서 불명과 원망을 멀리할 수 있도록 저를 채찍질해 주신 성령님께서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의 때를 계속하여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박지혜

세례요한과 석청 石淸, wild honey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삶을 의식주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박하고 절제된 인생이었던 것 같다. 악대 벌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 주식이었고 광야가 그의 삶의 터전이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주식이었던 석청(石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석청은 말 그대로 산속의 풀이나 바위틈에서 채취되는 아생꿀이다. 큰 나무 사이에서 채취되는 천연꿀은 목청(木淸)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석청은 토종꿀의 한 범주에 속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토종꿀이 1년에 한 번씩 채취되는 것과는 달리 석청은 채취자에게 발견될 때까지 수년에 걸쳐 숙성되다가 채취된다. 또한, 1년 1회 완전 숙성되어 채밀되는 토종꿀이 1년에 수회에 걸쳐 채밀되는 양봉 꿀에 비해 훨씬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석청은 그야말로 토종꿀 중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수년 전 한국에서는 한때 네팔산 석청이 풀귀 현상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누렸으나 네팔산 석청복용 후 사망자가 생기면서 맹독성 성분 함유 문제가 이슈화되어 수입 금지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했다. 심층 분석결과 맹독성 성분은 네팔과 티벳 접경 지역의 해발 2천~3천 미터에서 자생하는 철쭉과 식물에 함유된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에 의해 유발된 것



임이 밝혀졌다. 아무리 효능 좋다고 알려진 석청이라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의 제품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의보감에 수록된 석청에 대한 설명을 보면 "꿀은 성질이 평온하고 약간 따뜻하다(微溫).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오장을 편하게 하고, 기운을 돕고 비위(소화기능)를 보하고 아픈 것을 멎게 하며 해독한다.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하고 온갖 악을 초화시키며, 비기(脾氣: 소화기능)를 보한다. 또한 이질(장염)을 멎게 하고 구창(구내염)을 치료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 산속의 바위틈에 있는 것으로서 빛이 희고 기름 같은 것이 좋다. 일명 석밀(石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바람에 있는 꿀을 말한다. 산속의 바위틈이나 나무통 안에서 2~3년 묵은 것이어야 성질과 냄새, 맛이 좋다. 양봉한 꿀은 1년에 2번 뜨는데 자주 뜨면 성질과 맛이 좋지 못하다. 때문에 묵어서 허물게 된 것이 좋다."고 적혀 있을 정도로 석청의 효능은 옛부터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석청은 세례요한 당시에도 구하기 힘든 것이었으나 호사스러움보다는 절제된 삶의 한 단편으로 보인다. 왕이나 귀족들의 풍족한 산해진미에 수반된 특산품이 아니고 그야말로 메뚜기와 석청이 전부인 근근이 연명해 가는 나실인의 삶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의 금식하듯 매일매일 살다가 가끔씩 얻게 되는 단백질과 포도당의 섭취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 "주의 길을 예비하라"며 직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막1:3-4) 힘이 넘쳐 보인다.

보잘것없는 의식주의 모습이지만 그의 영성은 위풍당당하게 느껴진다. 풍요와 황금만능, 성공 신화를 향해 한없이 치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평, 통장 하나도 없이 사사다 가신 한경직 목사님의 모습이 세례요한의 삶과 오버랩 되어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 이태업

시기심은 평생 사명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토미스 아귀나스는 시기심을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슬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시기심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일을 하는 대신 나의 눈길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님에 두는 것이다. 시기심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선을 분내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비물어 주신 선을 무시하는 것이다. 시기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신의 장점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보느라 자기 일을 하지 못한다. 시기심은 인간의 모든 창조적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소모한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며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눅 9:62)



시기하는 것은 쫓점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다. 시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명에 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맞추기 시작한다.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눈을 돌리게 되고 평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서 빗나가게 된다. 인간 관계가 시기심으로 이어지면 삶이 힘들어진다. 현대사회의 구조 자체가 인간의 시기심을 부추김으로 성취하게 만든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역사가 지고요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4:4)

시기심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함은 고난이 다가올 징조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는가? 바로 시기심 때문이다. 시기심은 아주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대상에 대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게 한다. 시기하는 동안에는 미움, 증오의 감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마비된다. 시기심은 단순한 심리적인 감정이 아니다.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악령이라고 말쑤한다. "그 아픈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선이 사울에게 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아로하는고로 다윗이 쟁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지라" (삼상18:10)

시기의 영은 악한 영이다. 시기의 악한 영이 들어오면 강박 관념과 억압 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시기와 다름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약3:16)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질곡의 긴 역사에 바쳤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며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다윗을 미워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시기심 때문이다. 반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요한은 시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흥하심을 기뻐하고 시기심을 극복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시기심을 극복한 위대한 영웅들의 모습이 나온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붙잡은 이룬과 흘, 여호수아 뒤에서 말없이 선 길렘, 친구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한 요나단, 바울의 그림자가 되기를 원한 바나바는 위대한 무대 뒤의 영웅들이다. 부러지는 물처럼 자신을 감추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무를 꿀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귀한 사람이다.



청교도의 후예들

요한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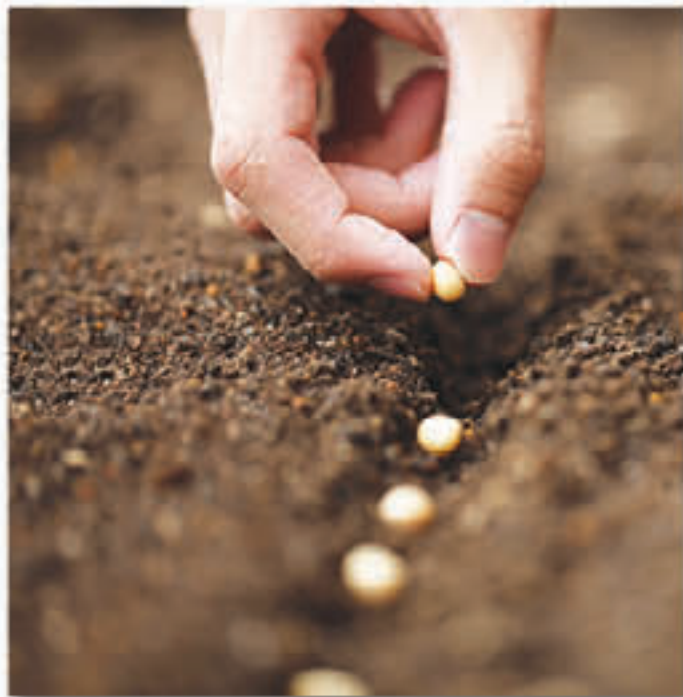
그리고 마침내 모라비아교도 친구인 피터 뵐러(Peter Boehler)의 간증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구원은 즉각적인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완전히 믿게 된다. 그 후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1739~1791에 있었던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웨슬리는 놀랍게도 자기가 설교할 때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된다. 요한 웨슬리가 이끄는 감리교도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를 시샘한 국교회에서는 쟁패를 동원하여 핍박을 본격적으로 하였다. 또한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다.' 외치며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만 남아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땅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며, 1753년 직접 발벗고 세계선교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왜소하였지만 것처럼 작은 몸 안에 세계를 흔드는 힘이 들어 있었다. 요한 웨슬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50년 동안 말을 타고서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 틈에 2백 권이 훨씬 넘는 책을 펴냈으며, 50이 넘는 나이에도 하루 평균 32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60년동안 한번도 걸러본 적이 없이 새벽 4시면 일어나 기도하고 설교하였고 동생과 만든 수많은 찬송가 중에 1778년에는 좋은 것만 뽑아 525곡의 커다란 찬송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가 89세의 나이로 죽을 때 두 개의 손가락과 하나의 찢 주전자, 그리고 다 날아빠진 코트 한 벌 밖에 없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었다. 그의 장례식이 있기 전날 그의 시신은 시티 로드 예배당에 안치되었다. 그의 시신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왔고,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위대한 빛은 이 나라들을 비추기 위해 떠올랐다. 이 묘비를 읽는 이들이여, 하나님의 도구인 웨슬리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 출처: Lloyd Jones의 home page

요한 웨슬리(John Wesley)는 1703년 6월 17일 사무엘 웨슬리 목사 부부의 열 다섯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요한 웨슬리는 신앙심이 많았던 어머니 수잔나 부인에게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1735년 10월 14일 요한 웨슬리는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식민지 주민들과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을 향해 떠났다. 그들은 2년 동안 조지아에서 사역했으나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1738년 2월 1일 그는 잉글랜드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웨슬리는 모라비인(Moravian) 교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그들이 갖고 있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에 도전을 받았다.



조성민의 잠언록



꿈

꾸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장애물을 볼 때에도 가능성을 보며
모든 사람이 낙심할 때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담이 감옥을 만들고
철장이 감방을 만들지만
더 힘든 곳은
내 욕심이 만든 감옥이고
내 편견이 만든 감방입니다.

걸어가는 속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고 있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변화의 목적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열

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꽃이 지는 것을 슬퍼
하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미숙한 삶에서 성숙한 삶으로 가는 여정에
장애를 피해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고난이 면제되는 길도 없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의 길이기 그 길을 갑니다.
기쁨을 미리 맛 본 사람은 고통과 위험에 기죽지 않
습니다.

닫혔다고 생각하면 닫힌 문이 보이고
열렸다고 생각하면 열린 문이 나타납니다
가장 단단히 잠긴 문은 내 생각의 문입니다.

어

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말을 믿고
영리한 사람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확인합니다.
사람 아는 일에는 누구나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차선의 삶이 주는 즐거움을 버리지 않고서는
최선의 삶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도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다 그사람 탓이지만
어른이 되면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도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다 내 탓입니다.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까닭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절로 이해되는 까닭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진실로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마음에 사람이 차오를 때 말하고
손발에 사람이 차오를 때 도우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
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것도 베풀 것이 없습니다.

- 조성민(베이직교회 목사)의 잠언록,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중에서...

편지부 한 해 감사...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교회에서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 지를 만들며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임마누엘' 스토리들—

감사합니다.

- 이윤선

임마누엘 창간호부터 사랑, 감사호 발행까지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성도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의 평방을 이룬 결정체였기에 더한 감사와 배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을 담으려 몸부림쳤고, 파곤 지치고 험겨웠던 순간에도 사랑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 준 보석같은 편지부 식구들과 '함께라서' 행복하고 기쁘게 달려 온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 김정신

달달한 것이 생각되면 오렌지 케이크를 굽거나 고구마를 굽는다. 특히 우리 편지부 식구들이 모임 때 고구마를 구어서 가지고 가면 인기가 짬 한입씩 먹을 때 마다 우리 편지부 식구들의 진한 사랑이 달달하게 느껴지는 그 옛 구운 고구마!

- 윤영숙

주님께 감사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감사를 글로 쓴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감동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글을 주님의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드리지는 글들을 모아 모아서 '임마누엘'지로 엮으며 이렇게 벅찬 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온 정성으로 함께 해주신 편지부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홍정희

편지부에서 봉사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 동창들이 들으면 무척이나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달란트 없던 제가 임마누엘 지를 펴는 일에 보탬이 되고 있다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달란트 생겼나구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임마누엘 여러분들의 사랑 안에서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감사합니다.

- 김범진

2014년 편지부 가족들과 손수 북은 그윽한 커피를 마시며 달~달한 고구마를 먹다보니 감사절이네요.

임마누엘지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은영

한 해 동안 부족한 저를 편지부 부원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지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며 저희 가정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 박정은

2014년 동안 편지부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크시고도 섬세하신 주님의 비전을 이번의 성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 형태로 열매 맺음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편지부이기를 소원해 봅니다.

- 김은경





임마누엘장로교회

Immanuel Lutheran Church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Tel. 408.283.5100/www.kepc.org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유택종
기획	이윤선
진행	김정신/장은영
사진	김범진/윤영숙
교경 및 교열	정현주
편집디자인	김은경/박정은/ 홍정희